

18_13_한국어_石造阿弥陀如来坐像(志賀の大仏)

석조 아미타여래 좌상(시가 노 오보토케)

이것은, 높이 약 3.5 미터, 폭 2.7 미터의 바위에 새겨진, 높이 약 3.1 미터의 아미타여래 좌상입니다.

13 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이 돌부처의 옆을 지나가는 길은, 오쓰에서 교토로 이어지는 야마나카고에 길입니다.

이 장소와, 야마나카초의 사이쿄지 절, 교토의 기타시라가와에 돌부처가 있습니다.

모든 불상에게, 여행자들이 도중의 안전을 기원했다고 전해집니다.

현재도 지역민들이 소중하게 지키고 있습니다.